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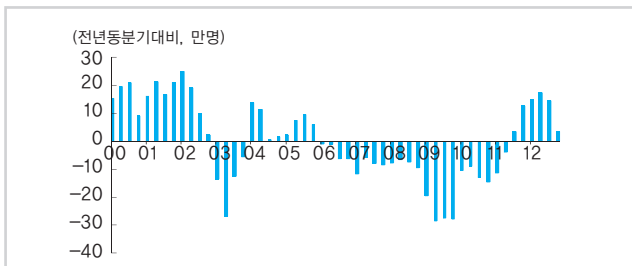
#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

임진 (연구위원, 3705-6355)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수가 2011년 8월 이후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이처럼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및 퇴직후 재취업 곤란 등에 주로 기인함. 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퇴직자의 신규 창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화·전문화 진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한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자영업자의 신규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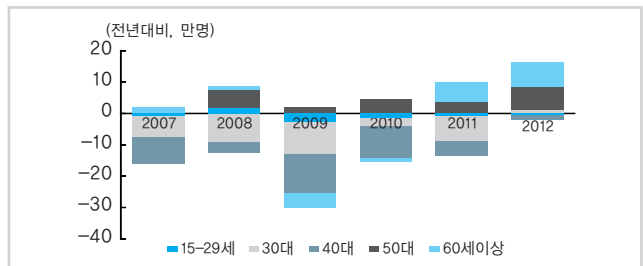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수가 2011년 하반기 이후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자영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2차례의 자영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영업자수는 큰 폭 감소함
  -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중심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통한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함.

<그림 1> 자영업자 증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자영업자의 연령별 증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처럼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및 퇴직후 재취업 곤란, 연금소득 미흡 등에 주로 기인함.
  -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4세로 국민연금 수령개시까지 6년 이상의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함.
  - 또한 경기부진에 따른 가구주의 소득감소, 원리금상환부담, 교육비부담 등으로 인해 50대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자영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수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 1955년에 태어난 세대가 일반적인 퇴직연령인 55세에 도달하게 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영업의 경영 여건은 동일업종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소매점, 음식점 등 주요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퇴직자의 신규 창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짧은 창업준비 기간, 노하우 축적 미흡 등 '준비된 창업'이 부족한 형편임.
  - 또한 대형소매점 증가,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판매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는 소득기준으로는 145.1만가구, 순자산기준으로는 128.2만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459.2만가구)의 약 30%에 이르고 있음.
    - \* 생계형 자영업 가구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으로는 2분위(연간 소득 2,609만원) 이하, 순자산기준으로는 2분위(순자산 9,618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의함.
    - \* 취업자수로는 2012년중 자영업자는 571.8만명이며 무급가족종사자(125.1만명)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696.9만명으로 추정되고, 가구수로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는 459.2만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처럼 취업자수와 가구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 가구내 복수의 자영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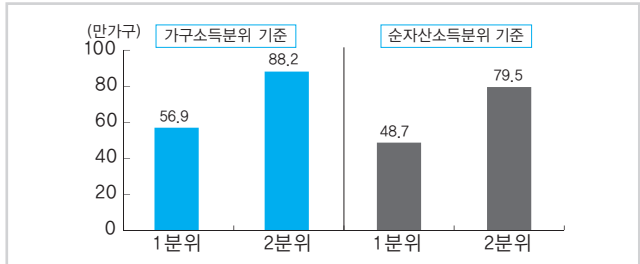
〈표〉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처분소득

(연간기준, 만원, %)

	2011년	2012년	증가율
상용근로자	4,217.6	4,481.6	6.3%
임시·일용근로자	2,031.5	2,118.4	4.3%
자영업자	4,069.0	4,062.6	△0.2%

주 : 1)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향후 정년연장,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를 분산시키며, 정년퇴직후 계약직 형태로의 재고용을 확대하여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함.
  -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노장년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특정 업종의 과밀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 및 퇴출 자영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대기업의 전통서비스업 진출 자제, 사회적 기업 설립 등 공생발전 노력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함.
- 또한 향후 내수부진 지속, 금리인상, 상환충격 등 외부충격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지원 및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구직기간동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에까지 밀려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KIF**